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와 정신신체증상: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

문소현*·안효자**†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Anger and Psychosomatic Symptom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So-Hyun Moon*·Hyo-Ja A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 Assi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ABSTRACT

Objective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anger to psychosomatic symptom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in relation to anger and other variabl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12 subjects in grade 4 or 6, an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with SPSS/PC 18.0 program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between state-trait anger and psychosomatic symptoms. Father attachment negatively correlated state-trait anger and psychosomatic symptoms. Also, mother attachment negatively correlated state anger and psychosomatic symptoms. However, maternal attachment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ait anger. Parental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state-trait anger and psychosomatic symptoms.

Conclusion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s psychosomatic symptoms, programs including parental attachment increasing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hese programs can increase parental attachment security which is mediator role between anger and psychosomatic symptoms.

Key words: Aanger, Aattachment, Child, Multi-cultural family, Psychosomatic

접 수 일 : 2013년 4월 9일, 수 정 일: 2013년 4월 28일, 채 택 일: 2013년 4월 29일

† 교신저자 : 안효자 (520-714 전남 나주시 건재로 253)

Tel: 82-61-330-3586, Fax: 82-61-330-3580, E-mail: callm68@dsu.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2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6만 8583명으로 해마다 1~2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부모의 국적의 대부분은 동북아와 동남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4만 6954명으로 전년보다 21%(8276명) 증가하였고, 2006년에 비해서는 5배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22.2%), 서울(15.9%), 전남(8.0%) 순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이 다문화가정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0.7%, 2014년에는 1.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 재학생 100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20만 명 이상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영희, 2012).

해마다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해, 문화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012년 3월경 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쇄 방화사건(한국일보, 2012. 5. 16)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학우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혼혈아라고 놀림과 왕따를 당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도 자퇴하고 찾김에 연쇄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는 문화충돌의 일면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분노와 분노 표출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모국어와 다른 어머니로 인해 언어발달이 늦고, 자아정체감의 혼란, 외모에 따른 왕따와 놀림 등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등, 2006). 아직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이거나 청소년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방지할 경우 앞으로 10년

뒤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Rubin 등(1995)과 채혜정(2004)은 아동들이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했을 경우 사회적 유능감이 저하되고 또래와도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강한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쳐왔을 때, 분노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아동의 분노와 분노의 부적절한 표현은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Novaco, 1976)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조기개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분노 중에서 특성분노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정서로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친밀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장혜주와 임지영, 2012; Grunbaum 등, 1997; Muris 등, 2004). 실제 이지영(2010)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애착이 사교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문소현과 안효자(2012)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분노와 부모의 애착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아동의 신체증상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 중에서 아동이 애착행동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보살핌 혹은 돌봄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Ciechnowski 등, 2002), 양육자로부터 일관적으로 온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은 신체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하림, 200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기능적 분노는 정신·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증상에 대한 지각하거나 과장하는 행동은 애착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단선적인 관계나 상대적 영향력만을 규명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분노와 정신신체 증상간의 관계에서 생애초기에 형성되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매개할 가능성이 높음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실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분노감정이 신체화로 발현되는(안효자 등, 2011) 다문화가

정 아동을 대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초창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언어적인 문제, 학교부적응에 대한 문제,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췄으나(설동훈 등, 2006; 안효자 등, 2011), 최근에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이 구체화되면서 아동의 경험할 수 있는 정서, 부모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효영, 2010; 문소현과 안효자, 2012; 이지영,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분노와 정신신체증상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부모 애착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신신체증상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 1)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분노, 정신신체증상,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파악한다.
-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분노, 정신신체증상, 애착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3)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분노, 정신신체증상간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분노, 정신신체증상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상관관계연구로 이차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와 G광역시에 거주하고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본 연구에 동의한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대상자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15로 하였을 때 85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총 112명이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J도와 G광역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을 만나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방문교사 및 한글교사의 협조를 얻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방문 및 한글교사에게 연구목적과 함께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유지됨을 교육시켰고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만 설문조사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총 127부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2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Spielberger (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이영식과 조주연(1999)이 번안하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노경험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분노경험은 상태분노 10문항과 특성분노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상태분노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현재 경험하는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성분노는 개인이 평소애 분노하는 경향성으로 안정적인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답범위는 4점 척도로 '거

의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식과 조주연(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상태분노 .94, 특성분노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상태분노 .92, 특성분노 .84이었다.

2) 부모에 대한 애착

Armsden 과 Greenberg(1987)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을 변안한 옥정(1998)의 척도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상호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 3가지 하위영역에 걸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범위는 5점 척도로 ‘결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애착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 .93, 모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 .91, 모 .92이었다.

3) 정신신체증상 측정

김현수와 김현실(1999)이 개발한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격특성 측정도구 중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영역의 10문항을 이용하였다. 응답범위는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10점에서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신체 증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분노, 정신신체증상, 부와 모 애착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 3) 분노와 정신신체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와 모 애착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분노와 정신신체 증상 관계에서 부와 모 애착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3개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첫 단계로 매개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는 것으로, 회귀식 $Y(\text{애착}) = \text{상수} + \text{비표준화계수 } B(\text{분노})$ 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는데 회귀식 $Y(\text{정신신체증상}) = \text{상수} + \text{비표준화계수 } B(\text{분노})$ 이다. 세 번째 회귀방정식은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분노와 매개변수인 부와 모 애착을 동시에 종속변수인 정신신체증상에 회귀하는 것으로 회귀식 $Y(\text{정신신체증상}) = \text{상수} + \text{비표준화계수 } B(\text{분노}) + \text{비표준화계수 } B(\text{부와 모의 애착})$ 이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되,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보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더 커야 한다. 그리고 3단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못하면 완전 매개이고, 유의하면 부분매개역할을 한다 (Bennett, 2000).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1.2세였으며, 가정형편은 보통이다 62명(55.4%), 조금 어렵다 23명(20.5%), 잘 산다 16명(14.3%) 순이었으며, 어머니 국적은 일본 49명(43.8%), 중국 24명(21.4%), 필리핀 28명(25%) 순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 특성 (N=112)

변수	분류	n(%) or M±SD	Range
나이		11.2±1.16	10~14
가정형편	매우 어렵다	7(6.3)	
	조금 어렵다	23(20.5)	
	보통이다	62(55.4)	
	잘 산다	16(14.3)	
	매우 잘 산다.	2(1.8)	
모 국적	기타	2(1.8)	
	중국	24(21.4)	
	일본	49(43.8)	
	필리핀	28(25)	
	베트남	3(2.7)	
	기타	8(7.2)	

2. 분노, 정신신체증상, 부와 모 애착 정도

대상자의 상태분노 정도는 평균 11.78점, 특성분노 정도는 평균 15.08점, 정신신체증상은 평균 17.55점이었고 애착 정도는 부 애착 평균 89.16점, 모 애착 평균 93.58점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연구변수 특성

(N=112)		
변수	M±SD	Range
상태분노	11.78±3.88	10~31
특성분노	15.08±4.00	10~28
정신신체증상	17.55±8.82	10~50
부 애착	89.16±17.53	48~121
모 애착	93.58±17.79	51~122

3. 분노, 정신신체증상, 부와 모 애착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분노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태분노는 정신신체증상($r = .26, p = .006$), 부 애착($r = -.31, p = .001$), 모 애착($r = -.21, p = .032$)과 특성분노는 정신신체증상($r = .29, p = .002$)과 부 애착($r = -.30, p = .002$)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 애착($r = -.42, p = <.001$)과 모 애착($r = -.37, p = <.001$) 역시 정신신체증상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3>.

<표 3> 분노, 정신신체증상, 부와 모 애착간의 상관관계

(N=112)			
	정신신체증상	부애착	모 애착
상태분노	.26(.006)	-.31(.001)	-.21(.032)
특성분노	.29(.002)	-.30(.002)	-.11(.257)
정신신체증상		-.42(<.001)	-.37(<.001)

3. 분노와 정신신체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와 모의 애착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3단계의 회귀분석에 따라 부와 모의 애착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4, 5와 같다. 상태분노와 정신신체증상간의 관계에서 부 애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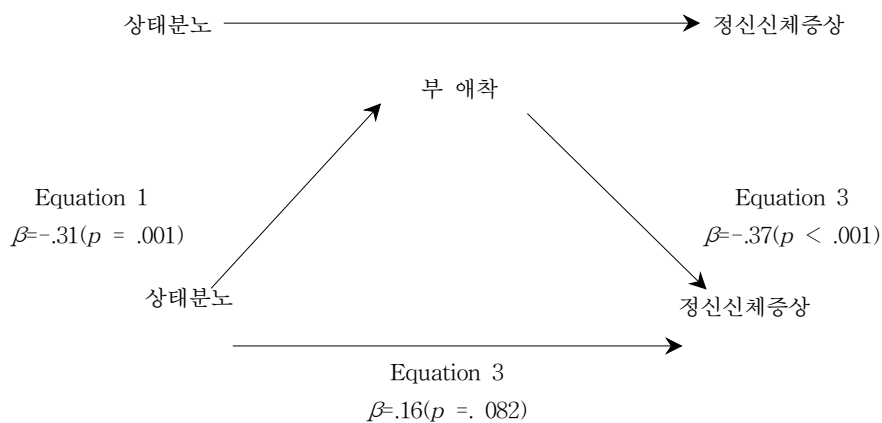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인 독립변수인 상태분노가 매개변수인 부의 애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3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상태분노가 종속변수인 정신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은 $.26$ ($p = .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상태분노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

변수 부의 애착은 β 값 $-.37$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상태분노의 β 값($.16$)이 2단계의 β 값($.26$)보다 작고 2단계에서 상태분노는 정신신체증상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beta = .26, p = .006$)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의 애착이 상태분노와 정신신체증상을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표 4><그림 1>).

<표 4> 상태분노가 정신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

변인	β		Adjusted R ²		F		p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1. SA → PA	-.31**	-.21**	.096	.043	10.92	4.72	.001	.032
2. SA → PS	.26**	.26**	.066	.066	7.82	7.82	.006	.006
3. Step 1								
PA → PS	-.37***	-.33**						
Step 2								
SA → PS	.16	.19**	.199	.170	12.70	10.58	<.001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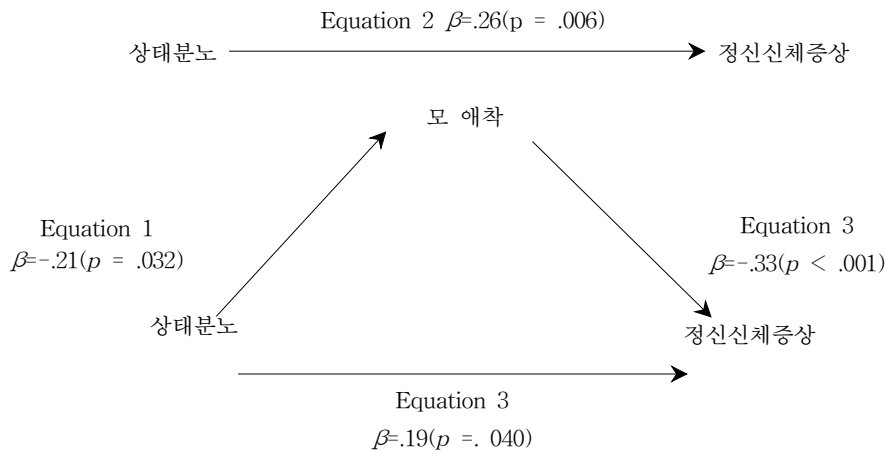
SA : state anger
 PS : psychosomatic symptoms
 PA : paternal attachment
 ** p <.05
 ***p <.001



<그림 1> 상태분노가 정신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부 애착의 매개효과

상태분노와 정신신체증상간의 관계에서 모 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인 독립변수인 상태분노가 매개변수인 모의 애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21(p = .03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상태분노가 종속변수인 정신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은 $.26(p = .0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

석에서 독립변수인 상태분노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모의 애착은 β 값 $-.33(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상태분노의 β 값(.19)이 2단계의 β 값(.26)보다 작고 2단계와($\beta = .26, p = .006$) 3단계($\beta = .19, p = .040$) 역시 상태분노는 정신신체증상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모의 애착이 상태분노와 정신신체증상을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표 4><그림 2>.



<그림 2> 상태분노가 정신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모 애착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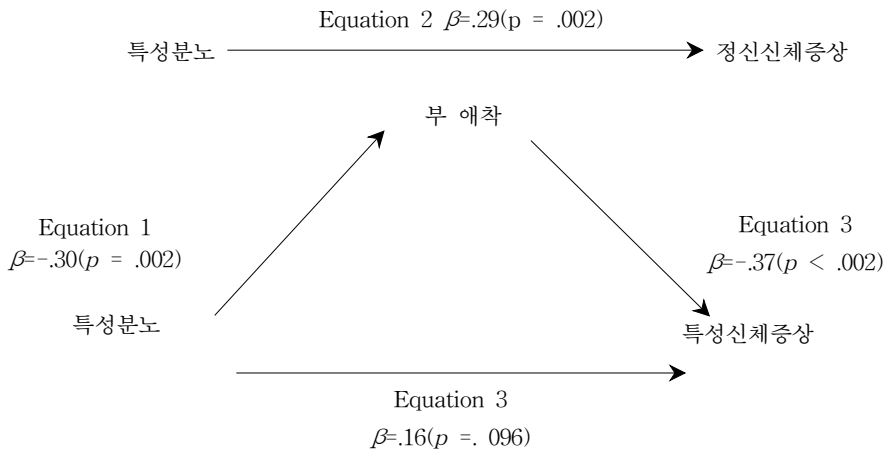
특성분노와 정신신체증상간의 관계에서 부 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인 독립변수인 특성분노가 매개변수인 부의 애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30(p = .00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특성분노가 종속변수인 정신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은 $.29(p = .00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특성분노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

개변수 부의 애착은 β 값 $-.37(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특성분노의 β 값(.16)이 2단계의 β 값(.29)보다 작고 2단계에서 특성분노는 정신신체증상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beta = .29, p = .002$)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의 애착이 특성분노와 정신신체증상을 완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표 5><그림 3>.

<표 5> 특성분노가 정신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부 애착의 매개효과

Predictors(변인)	β	Adjusted R ²	F	p
1. TA → PA	-.30**	.087	9.86	.002
2. TA → PS	.29**	.086	10.37	.002
3. Step 1				
PA → PS	-.37***			
Step 2				
TA → PS	.16	.197	12.54	<.001

SA : state anger
 PS : psychosomatic symptoms
 PA : paternal attachment
 ** $p < .05$
 *** $p < .001$



<그림 3> 특성분노가 정신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부 애착의 매개효과

IV. 토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가 정신신체증상 사이에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감과 긍정적인 자기 개념 형성에 바탕이 되는 부모애착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분노와 정신신체증상

사이에서 부와 모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상태분노보다 특성분노가 높고 부 애착보다는 모 애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태분노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재 분노의 정도라면 특성분노는 개인이 평소에 분노하는 경향성으로(Spielberger, 1988), 이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정서로 아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친밀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Grunbaum 등, 1997; 장혜주와 임지영, 2012; Muris 등, 2004).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는 부모와의 친밀감과 안정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서 더 애착을 보이고 있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결과에서는 분노가 클수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상태분노는 부모 모두의 애착에 상관이 있는 반면, 특성분노는 아버지와의 애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결과, 부의 애착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모두 정신신체증상을 완전 매개하지만, 모의 애착은 상태분노와 정신신체증상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보다는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높은 분노는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에 기인하여 정신신체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국어가 다른 어머니와의 관계 보다는 모국어가 동일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Armsden과 Greenberg(1987)은 애착을 형성하는데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고, 실제 김효영(2010)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 언어적인 부분 이외에도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양육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Thompson(1999)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고통스러운 정서나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보다 바람직한 정서 조절 능력과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본 연구에서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어머니와

맺고 있지만 정서적인 영향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Thompson(1999)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Bowlby(1973)는 분노는 기본적으로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저항이나 애착 대상을 향한 재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반응이라고 하였고, 장혜주와 임지영(2012)은 아동의 분노는 가족 간의 친밀감과 안정감이 좌절이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쳐봤을 때, 분노라는 정서는 애착관계가 좌절되는 경험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남연과 양난미(2012)는 아동기 때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민감하고 표현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기희생과 자기억제로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해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분노는 아버지와의 친밀감과 안정감의 좌절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애착 유형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정서조절 능력이 어려워지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쉽게 분노나 적대감의 형태로 표출되는데(Meesters 와 Muris, 2002), 다문화가정 아동 역시 분노가 높을수록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부정적이며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토의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특성분노가 더 심하고 이러한 분노는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의 좌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 조절을 통한 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정신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애착형성, 특히 언어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와 정신신체증상 그리고 부모애착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동의 분노가 정신신체증상을 유발하는데 부모의 애착정도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상태분노 정도는 평균 11.78점, 특성분노 정도는 평균 15.08점, 정신신체증상은 평균 17.55점이었고 애착 정도는 부모애착 평균 89.16점, 모애착 평균 93.58점이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 정신신체증상, 부와 모 애착간의 상관관계에서 대상자의 상태분노는 정신신체증상, 부모 애착과 특성분노는 정신신체증상과 부모 애착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와 정신신체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 매개효과는 부모의 애착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모두 정신신체증상을 완전 매개하지만 부모의 애착은 상태분노와 정신신체증상을 부분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아버지와 관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입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와의 애착정도는 높지만 아버지와의 애착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에 더욱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와 아버지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1. 김현수, 김현실. 한국청소년의 성격특성 측정도구개발. 정신간호학회지 1999;8(1):190-201.
2. 정영희.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5만명 시대” 시사투데이 2012년 9월 18일자.
3. 김하림. 초등학생의 신체증상보고와 사회적 결과의 관계 : 어머니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4. 김효영.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5. 김남연, 양난미.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012;13(5):2309-2328.
6. 문소현, 안효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분노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보건의교육학회지 2012;13(1):33-43.
7.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발간등록번호 11-1060100-000155-01) 2006.
8. 안효자, 조성식, 조원탁.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의 일본 관련 역사교육 경험. 한국지역사회학회 2011;19(3):47-75.
9. 옥정.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10. 이영식, 조주연.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 표현척도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9;38(4):794-804.
11. 이지영.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2010;65:169-186.
12. 장혜주, 임지영.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분노원인, 분노표현 유형과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2;33(3):23-43.
13. 채혜정. 학령기 아동의 분노 경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2004;8(4):671-703.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5.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국제결혼가정 자녀. 2012.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10&tblId)
16. 사설. 다문화 소년의 방화, 우리 사회의 반성. 한국일보 2012년 5월 16일자.
17. Armsden GC, Greenberg M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87;16: 427 - 454.
18. Bennett JA.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differenc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00;23:415-420.
19.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1973. pp. 456.
20. Ciechanowski PS., Katon WJ., Russo JE., & Dwight-Jhonson MM. Association of attachment style to lifetime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 in patients with Hepatitis C. *Psychosomatic* 2002;43:206-212.
21. Grunbaum JA., Vernon SW., Clasen CM. The association between anger and hostility and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Ann Behav Med* 1997;19(2):179-189.
22. Meesters C., & Muris P. Attachment style and self-reported agg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2002;90(1):231-235.
23. Muris P., Meesters C., Morren M., Moorman L.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 Psychosom Res* 2004;57:257-264.
24. Novaco RW. The functions and regulation of the arousal of anger. *Af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6;133:1124-1127.
25. Rubin KH., Coplan RJ., Fox MA., & Calkins SD.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 a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95;7:49-62.
26. Spielberger.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review. *Ann Behav Med* 1988;19:179 - 189.
27. Thompson R. The individual child: Temperament, emotion, self, and personality. In M. H. Bornstein, & M. E. Lamb(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stbook*(pp. 377 -409). London: LEA. 1999.